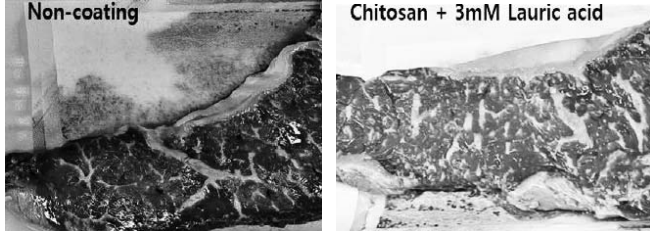


“식품 원료로 만들었어요”... 소고기 품질 유지 효과 높아

농진청, 안전 코팅기술 개발

키토산·리우르산 혼합 용액으로 코팅해 고기 변색, 세균 증식 막아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 증가 및 신선도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가 대두됨에 따라 육류 포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학 첨가물 없이 식품 원료를 이용한 코팅 기술이 소고기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 축산물 유통 개선에 새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 원료인 키토산과 리우르산 혼합 용액으로 소고기를 코팅(투명색을)했을 때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 왼쪽부터 코팅하지 않은 등심육과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등심육을 3주 동안 냉장 후 꺼낸 상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식품 원료인 키토산과 리우르산 혼합 용액으로 소고기를 코팅(투명색을)했을 때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우고기를 코팅하지 않은 무처리와 27μ 코팅 처리(키토산 코팅, 키토산+리우르산 코팅)로 구분한 후 랩으로 포장해 3주 동안 냉장 상태(2도)에서 품질 유지 항목을 비교했다. 3주 후 고기색의 변색 정도를 비교한 결과,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가장 낮았으며 키토산 코팅 소고기, 일반 랩 포장 소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선고기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인 지방 산화도와 단백질 산해도는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 포장 소고기보다 각각 50%

62%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부패 원인인 미생물의 성장도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 포장 소고기보다 낮게(총균수 48%, 슈도모나스 62%)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 랩포장 소고기의 냉장 유통기한은 약 14일 이내인데 반해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소고기는 저장 21일째에도 신선 고기 품질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키토산+리우르산 코팅 용액이 랩포장 소고기의 품질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과 소고기 보관 방법에 키토산+

리우르산 코팅 용액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식육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미트 사이언스(Meat Science) 2월호에 게재됐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코팅 기술은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를 이용해 개발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현재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이지만 향후 소고기 품질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포장·보관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 내달 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경진원)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14일 경진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진단, 전략수립, 자금지원 등 재도약을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며,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분야별 경영개선지원과 재창업으로 나눠 총 50억체를 지원한다. 경영개선지원은 작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재창업지원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8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특허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이현용 원장은 “내년 위기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김제농협-동진 농어촌공

지역사회 공헌 협약 체결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이종화)가 지난 13일 농업·농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두 기관은 향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의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에는 농촌봉사활동참여, 자원봉사자참여 및 인적 물적 인프라제공, 수요처연계·지원, 프로그램 제안 및 홍보, 재난재해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연대 등을 담고 있다.

이종화 지사장은 “김제농협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영농지원에도 적극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바이오식품산업 창업 활성화

전북도-바이오진흥원, 창업아카데미과정 시행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바이오식품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창업아카데미 과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2019년도에 30명 규모로 첫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창업 단계별·분야별로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농식품 창업아카데미(초기 성장 단계)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위기관리(자동차 및 부품 연관산업 종사자 대상) 전직창업아카데미(식품제조업, 식품외식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6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4일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11명), 15일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7(15명) 과정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아이디어 사업계획 평가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산업단계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계획서, 사업 제안서 등 최소 1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제공,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지

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화 촉진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박람회 현장 실습 등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평가회 등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1,5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에 우수 사업화 기업 시상식 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교육수료생 중 20여개사 신규창업을 이뤘으며, 진흥원 및 유관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 예비창업패키지 및 초기창업패키지 진입으로 창업사업화 기반 마련과 신상품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 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생 추가 모집은 4~5월 중 진행 계획이며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위기관리 전직창업아카데미(식품제조업, 식품외식업) 등 3개 과정 진행을 계획으로, 바이오·식품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자는 진흥원으로 상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원장은 “바이오·식품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창업성장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고창부안축협,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진행



전북농협은 고창부안축협과 함께 14일 부안군 출포면 축산농장에서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시중)과 함께 14일 부안군 출포면 축산농장에서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 농협 부안군지부, 고창부안축협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쁜 이미지를 그려 축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나눔축산)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전국 축협을 통해 농가별 신청을 받아 전국 62농가가 선정됐으며, 이중 전북에서 10농가가 선정 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방취립 식재, 벽화 그리기 등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한라KD,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오늘 견본주택 오픈

중심상업용지 이용 ‘용이’

25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26~27일 1~2순위 청약
내달 16일부터 정당계약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광역 조감도.

(주)한라와 KD(주)가 전북 군산시 내 흥동 92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견본주택을 오는 15일에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연면적 14만542㎡, 대지면적 5만3578㎡ 지하 1층~지상 25층, 총 6개 동 규모다. 평형대로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75~84㎡ 총 878가구로 구성되며, 세부면적으로 ▲75A㎡ 99가구, ▲75B㎡ 50가구, ▲84A㎡ 448가구, ▲84B㎡ 281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일이며, 5월 16일부터 6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기간 내, 지역 우선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 약 6,600여 가구와 1만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는 지구 내에서도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중심상업용지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에서 군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지역간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교

통편으로는 강변로를 비롯해 군산IC와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으로는 진포시비공원, 금강체육공원을 비롯해 강변 산책로와 금강과도 가까워 쾌적하다. 단지는 주변 자연 환경에 맞춘 입면과 스카이라인 설계를 선보였으며, 단지 지상에 가로 경관 연출과 함께 다양한 보행길을 계획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면 설계로는 희소성이 높은 75㎡와 84㎡의 중형 평면을 구사했으며, 일부 평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형을 남향 위주의 4Bay로 설계함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내부에는 현관과 주방에 각각

펜트라(유상오픈) 설계를 선보였으며, 드레스룸 가구, 블랙이썬, 냉장고장 등의 유상오픈을 통해 넓은 수납공간을 선택 활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맘스카페, 피트니스, 상상도서관, 클럽하우스 등은 물론 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골든리운지,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01에 마련됐다. 견본주택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및 관람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자체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 중인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에서 2개 분야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드론 하늘길 구축 안전성 ↑

LX,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2개 분야 수행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 중인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에서 2개 분야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이번 공모 결과 LX는 도심 비행로 발굴, 공항·특수시설 등 2개 분야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사업과 드론택시의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드론의 비행계획 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 충돌 방지 등을 총괄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이 활용하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X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 촬영 작업과 주소 기반의 배송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증으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다.

특히 해상·교외와 달리 도심지는 복잡한 장애물이 많아 드론 비행을 위한 기술·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LX가 함께 추진 중인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드론 이착륙 지점 주소 부여) 구축사업 등을 토대로 한 전문성이 적극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항·특수시설분야는 항공무선포화 지소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발생에 대비한 교통관리체계 기반 안전 드론길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KAC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시에는 K-드론시스템을 통한 다목적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물 제한 없는 도심 시범노선 발굴, 주소 기반의 드론 배송 등 생활 밀착형 드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희 기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 등급

국민연금, 지난해 조사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점수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90.8점을 받아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받은 점수는 246개 공공기관 평균 85.7점보다 5.1점 높은 점수로, 2021년 조사 대상 기관 중 41개 기관(16.7%)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사항목별로는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9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서비스 품질(92.2점)’, ‘전반적 만족도(91.1점)’를 비롯해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공단은 그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CS 컨설팅을 실시해 고객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메뉴얼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국민연관, 국민연금자문단, 고객 의견의 소라(VOC) 등 여러 채널로 국민 의견을 수집·분석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국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하고 21종의 신청서 작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방문 민원의 신고서 작성 소모 시간을 건당 4분씩 단축시키는 등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며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